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hcl260@hanmail.net
TEL: 033)256-1260~1
FAX: 033)257-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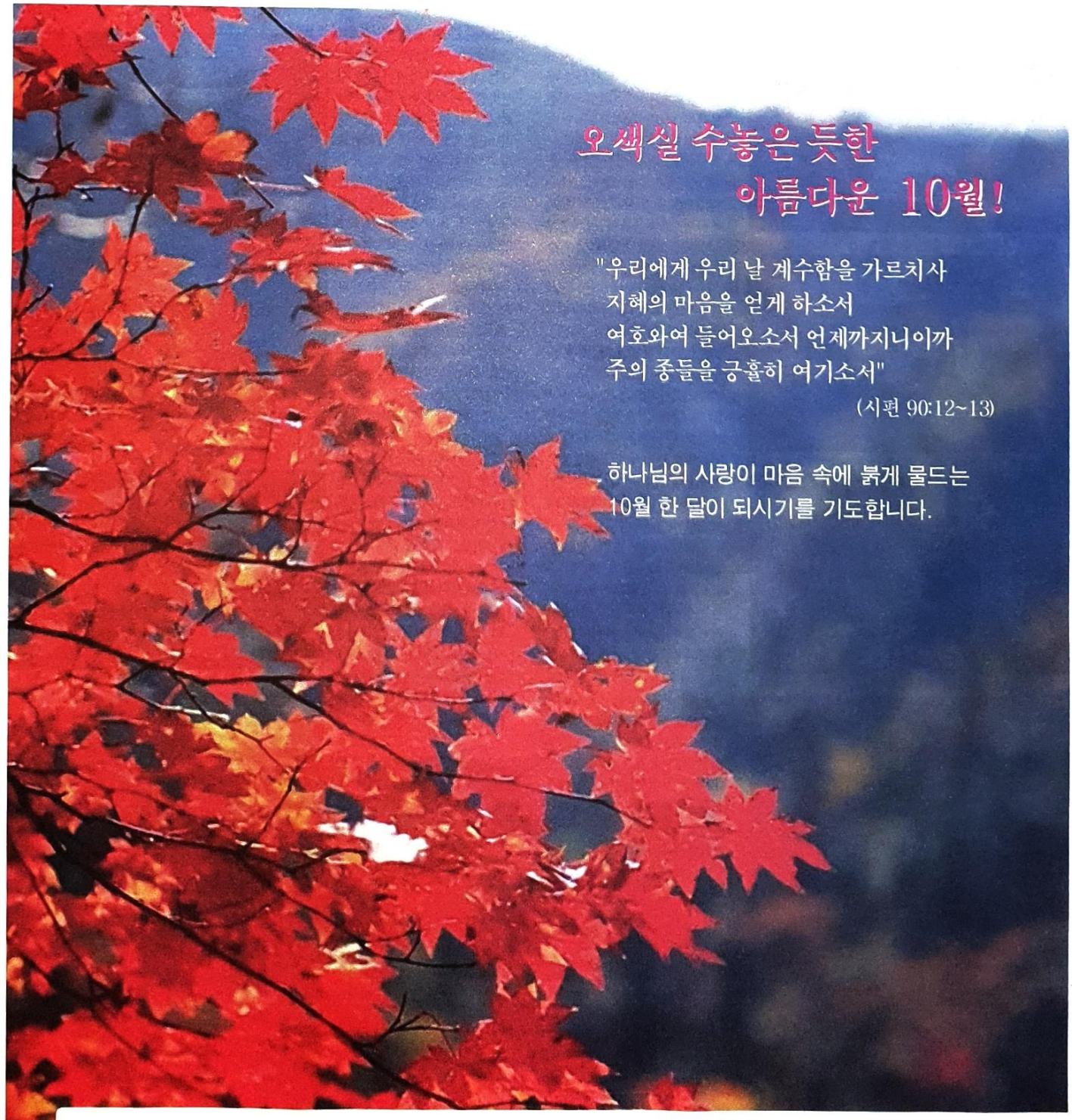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19호 2008년 10월



오색실 수놓은 듯한 아름다운 10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90:12~13)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 붉게 물드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INDEX

2 성시화! 그 도전과 도약의 발자취
3 춘천성시신문의 내일을 말한다!
4 2008 춘천성시화를 위한 연합선교대회
6 아고보의 임성이 살아 있는 교회



9 | 싯갓봉, 가덕산



13 | 복음서 영화

"성시화! 그 도전과 도약의 발자취"

춘천성시신문 창간 10주년을 즈음하여…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창립된 지 12년, 춘천성시신문 창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성시화! 그 도전과 도약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자.



1. 1996년(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지 24년 만에 성시화를 위한 상설기관인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성시본부)가 창립되었다.



2. 1997년(은사별 영역그룹의 활성화) 춘천성시화를 위한 은사별 영역그룹이 성시본부 창립이후 활성화되었다.

3. 1998년(성시신문창간) 성시본부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성시신문이 창간되었다.(창간 : 98.9.15. 사무국장:조충환목사).



4. 1999년(성시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된 이래 청주, 대전, 인천 등지에서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되어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5. 2000년(성시운동의 해외확산-인도 비하르주와 자매결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인도 비하르주의 파트나시(인도에 수가족 이영길 선교사)를 영적 자매결연도시로 맺었다.



6. 2001년(기독교문화운동전개-홈페이지와 십자가 행진)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임택창목사)에서는 부활절 새벽촛불예배와 더불어 기독교문화 정착을 위한 십자가 고난행진을 계획 실행했다.



7. 2002년(전도와 선교운동의 활성화-총력전도, 해외선교를 위한 퍼스펙티브스) 해외선교 활성화와 선교사 동원을 위한 춘천 1기 목회자, 선교단체 지도자 퍼스펙티스브스(4.29 ~ 7.2. 장소: 중앙감리교회, 주최: 선교한국,CCF)가 개설되어 많은 지도자들이 동참하였다.

8. 2003년(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 춘천)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선교와 성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1회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11.2~11.5 강사:이동휘목사외 장소:동부장로교회)' 가 시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호응을 얻었다.



9. 2004년(새로운 도약-성시본부 개편과 성시신문 재창간) 성시본부와 성시신문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임원진으로 개편되었다(본부장:오승룡, 사무총장:조영춘, 성시신문 편집인:박상호).



10. 2005년(지역복음화를 향한 도전과 과제) 강원도 총 기독교연합회에서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민 사랑 결의대회(햇불기도회)' 를 개최하였다(8.28. 오후 1:30 장소:춘천호반체육관).



11. 2006년(지속가능한 21세기 세계 기독교 선교운동을 향하여) 세계선교의 영적 지도자 루이스 부쉬 목사가 춘천성시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의논하기 위해서 춘천을 방문했다(5.26~5.31).



12. 2007년(준비된 통일을 위한 영역별 성서한국 춘천대회) 춘천성시본부는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서한국과 연합하여 영역별 성서한국 춘천대회를 개최하였다(7.24~27, 강원대).



13. 2008년(다음세대를 위한 청소년비전캠프)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성시정신을 다음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청소년비전캠프를 개최하였다(8.4~12, 중국 고구려유적지 및 백두산 등반).



[글 성시본부 사무총장 정재호 목사]

춘천성시신문의 내일을 말한다!

- 박상호 전 편집장과의 인터뷰

춘천성시신문 창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성시신문의 발전을 향한 그 비전을 들어보자.



성시신문편집장으로 수년간 섬겨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오승룡 목사님이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하실 때, 성시본부 회의 중 춘천성시신문을 맡으라는 반 강제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 성시신문 발행이 어려운 형편인지라, 역시 첫 달은 신문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나의 생각대로 타포로이드 판 8면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편집요원들이었습니다.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제호, 이영규 목사님들과 오창호, 김규현, 김수영 전도사님들 그리고 최춘배 집사님, 김미경 간사님으로 편집부가 조직되었고 제68호 성시신문을 전체 8면으로 칼라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행하여 3개월 만에 12면으로 4면 증판 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성시신문이 가 있었고 특히 필리핀을 다녀온 장로님이 필리핀에 있는 어떤 언어 연수원에 춘천성시신문이 있더라는 말씀에,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성시신문 잘 봤다고 인사할 때 만드는 사람의 즐거움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성시운동에 있어서 성시신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시운동의 맹점은 홍보와 지속적인 연결성의 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끝나면 총회하기 전회기에 세웠던 계획은 백지화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연합회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춘천이라는 도시를 복음화 하자는 목적이 있다면 성시운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연합회임원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살아있어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새로운 회장과 임원에 의하여 그 정책이 바뀌고 대부분 몇 가지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임기를 마치고 재정도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연합회와 성시운동의 비전을 위해서는 성시신문이 그 교량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시신문은 성시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성시운동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성시신문만이 성시운동의 역사적인 연결성을 위한 유일한 맥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독언론지로서 성시신문이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신다면.

지금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시신문편집에 참여했을 때의 꿈은 성도간의 네트워크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시신문은 교단간의 사랑방이며 교회간의 사랑방이며 성도간의 사랑방이기를 바랬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지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기독인의 대화의 장이지만 비 기독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방, 곧 현대적 접견실이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중립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조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시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연합단체는 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장에 의하여 자칫하면 정체상태에 들어갈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연합활동입니다. 따라서 성시신문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시신문이 기독교연합회의 성시본부에 속하더라도, 독립된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론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성시신문과 관계없는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편집부 형태로는 곤란합니다.

성시신문은 편집부가 아니라 성시신문사로 그 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역사성(歷史性)과 역사성(役事性)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연합회 곧 성시본부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며, 그 방법은 기독교인 기업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부상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춘천의 교회와 크리스천 기업,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더 좋은 신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시신문은 단순히 신문 발행에 끊이는 것이 아니라 성시운동을 위한 모든 문서 발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춘천을 몇 개의 지구로 편성, 지구별로 교회 명단이 들어간 연합 전도지나 안내 전단지를 제작 보급함으로 이단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막는 원천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지역 복음화 활동에 참여하여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넓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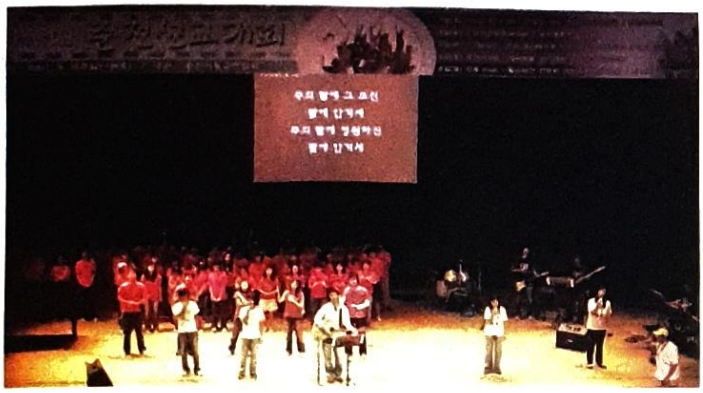
자칫하면 현재 수고하고 있는 분들에게 결례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성시신문이 타포로이드 판 칼라8면에서 12면으로 지금은 16면으로 발전되고 있음으로 보면서 현재 수고하고 있는 편집부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족(蛇足)을 붙이듯 공연한 떠들음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성시신문이 지역 성시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독자들이 인식하고 재원확보에 협력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취재. 정재호]



조셉 잉글리시 어학원
Joseph's English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영어는 어렵다?
영어는 재미없는 공부다?
영어 "오에" 공화국 대-한민국!
영어에 관한 수많은 오해는 이제 그만 속시원히 풀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말해버리자! 말할 수 있다!
Easy Fun Can speak!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어 그것도 원어민 수준의 발음과 감각으로
조셉잉글리시의 EC English Training Center 에서!
믿을 수 없다고요? 직접 체험해보세요.
해외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전문 통역사 번역사로 활동한 원장직강!
직접 현지 영어권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감각으로
쉽고, 재밌고, 확실하게 영어의 세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공개설명회
영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설명회
일 시 : 2008. 10. 11(토) 오전 11시
장 소 : 조셉잉글리시어학원 (구 베드로정형외과 4층)
문 의 : 033) 2566-114 / 0107-4146-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 성시화"

2008 춘천 성시화를 위한 연합선교대회

한해 수고와 땀을 기쁨으로 대신하는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춘천 성시화에 대한 우리의 꿈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뿌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라도 거두게 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열망으로 이번 "2008 춘천 연합선교부흥회"를 계획 ·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춘천 성시화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도시, 춘천 성시화의 도시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성시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춘천 성시화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 개교주의 개교단주의가 팽배하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겸허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바로 듣고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거벗고 맨발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에 3년 동안 순종하는 선지자에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의 큰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4천 2백 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언약을 지금도 자자손손 전수하여 지키고 있으며, 나라 없는 2천동안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언약의 말씀을 전수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춘천 성시화의 꿈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 계속해서 이어져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극을 보면 왕의 어명으로 사약을 받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명이요~~"라는 말이 떨어지면 사약을 받는 신하는 죽음 앞에서도 의관을 갖추고 어명 앞에 나와 예를 다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왕 앞에서 예의 갖추고 어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지요. 불순하고 예의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성회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의 갖추어 듣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정호목사 초청 부흥성회

10월 6일(월)부터 8일(수) 저녁7시 평화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성회에는 대전 성시화에 큰 꿈을 가지고 계시며 새로남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3일간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 영광", "가정회복", "성도의 무장"이란 주제로 시간시간 우리를 깨우실 주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공동체가 정체성이 회복되고,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춘천복음화를 위하여 목양의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소통의 목회(고전 9:19~23)"를 주제로 〈목회자세미나(화, 오전 10:30, 평화교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전, 성시비전 포럼

또한 〈성시비전포럼(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성시화운동의 고장입니다. 현재 성시화운동은 국제적인 기독교운동으로 성장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시비전포럼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운동'이라는 주제로 국제적으로 성장한 성시화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시화운동의 지역 간 유대와 효과적 협력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의석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춘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입니다. 다가오는 통일한국과 세계선교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일에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춘천 선교대회 부흥성회

- 일 시 : 10월 6일(월) ~ 8일(수) 오후 7시
- 강 사 : 오 정 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 제자훈련 목회지원협의회(Cai-net) 전국대표
  - 한국교회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 국제선교회(Operation Mobilization) 대전이사장
  - 대전 충청 학원복음화협의회 공동대표
  - 대전 CBS 운영이사장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목회자 세미나

- 일 시 : 10월 7일(화) 오전 10시30분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성시비전포럼 〈One Vision One Movement〉

- 일 시 : 10월 8일(수) 오후 2시 ~ 5시
- 강 사 : 각 지역 성시관련 인사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찬양과 함께 하는 성시중보기도회

- 일 시 : 10월 9일(목) 오후 7시30분
- 장 소 : 유스 아트홀(명동 유영호치과 3층)



속·독·능·력 6일 완성 CAMP

CAMP 입정안내 mpr.or.kr

- 일 시 : 2008년 10월 20일(월) 10월 25일(토) 5박6일
- 장 소 : 강촌 유스호스텔(www.kyh.or.kr)
- 캠 프 비 : 특별할인 36만원 (실제 캠프비 92만원)
- 대 상 : 초등 3학년 이상 누구나, 성경1독을 원하시는 분이나 목회자
- 입금계좌 : 우체국 200022-06-028975(예금주 오의석)
- 접수기간 : 2008년 10월 18일까지(선착순 00명)
- 기 념 품 : 독서대 계산기 스톱워치 교재2권 필기도구(노트 볼펜)
- 접수상담 : 김은주 간사 017-380-9772 · 김미경 간사 010-3118-9355
- 개인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 후 원 : 춘천기독교연합회 033)256-1260

최고기록 4분 안에 1독하는 MPR심상학습 속독법을 6일에 완성하는 속독법 CAMP!!
한국기독교교육대상 · 한국교육대상 한국교육산업대상 · 대한민국영재교육브랜드 대상 특허등록 등 수상다수

MPR심상학습연구소 교육상담 : 02) 6092-0114 / 6092-0112-5 청진회 소장 H.P 010-9973-1583 / 010-5140-1583



변화하는 러시아, 복음으로 도전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28살에 그리스도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외향 선교회의 훈련을 받은 형제와 24살에 호남신학교를 졸업한 신혼부부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러시아 땅으로 들어간다. 이들이 유태권, 두경화 선교사이다. 그들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영세민 아파트를 다시 임대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집이라 아파트 문도 나무로 허술하게 되어있는 그런 곳인데, 하루는 현지인 4명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돈을 내라는 것이다(이들은 현지 강도들이다). 그때 선교사는 24불 밖에는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임신 5개월 된 사모의 배를 쥐어박으면서 여러 시간 동안 협박을 계속했다고 한다. 없다고 맞고, 돈 내라고 구타를 당하면서 선교사는 꾀를 써서 안방으로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들을 큰방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 후 유 선교사는 문고리를 잠그고 도망가라고 소리를 치자 사모는 맨발로 도망을 갔다. 하지만 문고리를 붙잡고 있던 이 초임 선교사는 그들에게 짓밟히고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보니그들이 아직도 가지 않고 있더란다. 그런데 그들이 좀 이상하게 보여 가까이 가보니까 집에 성찬용 포도즙을 보관중인데 술인 줄 알고 마음껏 마시고 취하여 있더란다(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한다.). 그래서 유 선교사는 맨발로 눈길을 달려서 도망하여 피신을 해서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다른 선교사와 돌아와보니, 경찰이 이미 와 있었고, 그 일로 복중에 아이는 숨은 쉬는데 죽었다고 한다.

그 후 사모는 러시아 땅을 떠날 마음을 먹고 작정기도를 시작하면서 "떠나라" 는 말씀이 많다고 생각되는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며칠이 되었는데도 "떠나라, 가라"는 말이 보이지를 않더란다. 오히려 작정기도 하루 전날에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더란다.

핏 값으로 세운 교회





그래서 시작된 선교사 생활 16년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무지한 어려움 속에 "젤로니 그라드 교회"와(800평에 3층 250평) 또 "송네츠교회"(400평, 3층)를 헌당하고 이번 선교 방문(8월 11일~22일) 때 창립1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 현관 지붕에 비로써 십자가를 달았다. 러시아는 15년이 넘어야 법적으로 십자가를 달수 있단다. 이렇게 시작된 러시아 선교는 두 개의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하고, 우리가 있는 동안 선교센터 부지 800평 우리 돈으로 6,500만원 정도 되는 땅을 현지 교인들이 2,500만원 헌금을 모으고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계약하는 것을 보았다.

러시아 선교의 과제와 기도제목

지금부터 6-7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의 러시아는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먼저 경제적인 사정이다. 그때 간호사를 하던 교회 청년들이 월급 5-6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90-100만원으로 올랐고 모스크바의 물가도 특별히 음식 값이 우리나라의 3배 정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자장면 1만6천원).

러시아 정부가 작년 10월 17일 비자 법을 개정해 대다수 선교사들에게 사실상 3개월짜리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선교사들은 이번 비자법 개정으로 장기적인 사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복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체류자는 365일 중 180일만 러시아에 머물 수 있고, 그나마 이 180일 가운데도 90일을 초과해서 연속 체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재 논의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신학교육을 시작하였다. 현지 사역자들의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훈련의 부족과 체계적인 성경 교육의 미비함으로 이단이 날뛰고 사역자들이 사상적인 통일성이 흔들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또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엄청난 인구와 선교 대상지역으로의 잠재력을 생각할 때 앞으로 러시아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선교와 목회의 필요에 적합한 과목 중심으로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서 계속 돕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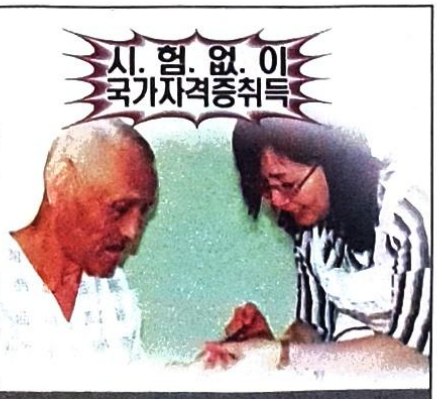


이번에도 현지인 목사 4명을 포함해서 각 부서 사역자들과 찬양인도자, 청년들 합20명이 아침부터 숙식을 하면서 2주간 교육을 실행하였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러시아 정교회는 샤머니즘으로 점철 된 집단으로 우리나라의 불교와 같았고 이미 그 역할을 상실하였다. 러시아 현지 사역자들의 각성과 또 엄청나게 변하는 경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러시아는 선교지로서 또는 중앙아시의의 선교 교두보로써 그 가치와 역할이 점점 증대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조영호 목사]



국가자격 요양보호사 모집



지금까지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9월 22일 신규 7기 주,야간 개강을 교사 이전관계로 10월 13일로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교사 이전 후 새 교사에서 예전보다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수강이 연기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교육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강 안 내

노동청 근로자능력개발 지원 제도 실시

※ 등록마감 10월 11일 토요일까지 본 교육원 사무실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류 1통, 사진반명함 3매, 주민등본 1통

"10월 13일 신규반 주간반 40명(교육기간45일) 야간반 40명(교육기간75일) 모집"

춘천 시외버스 육교 건너편 성이군검 회관 2층으로 이전과 더불어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가평 양구 회천 홍천 어느 지역이라도 외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 강원도 제2호 지정교육원 사무실 TEL 033)241-2660, 242-7664 / HP 011-448-7660



야고보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천전교회(이복규 목사)는 1915년에 창립되어 9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뿌리 깊은 교회이다. 지난 2001년부터는 실버타운 격인 『나눔의 집』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큰 반향(反響)을 불러 왔다. 일찍이 야고보는 참다운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약 1:27)이라고 정의하였다. 지난 1993년, 이복규 목사의 부임 이래 내실 있고도 미래지향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천전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천전교회(이복규 목사)편입니다

이복규 목사



이 목사의 고향은 충주이다. 집안에 기독교인이 없었던 시절 하나님은 신비스런 방법으로 이 목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5살 위의 누님이 이름 모를 중병에 걸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때에, 동네 누군가 말하기를 '예배당에 다니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다.

순수했던 소년 이복규는 누님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보디가드(?)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누님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기하게 병세가 호전되었고, 동생으로서 일종의 의무감으로 교회를 출석하던 이 목사는 참 신앙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는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오묘한 섭리를 누가 알 수 있었으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 목사는 회고한다.







이 목사의 첫 목회지는 원주 무실동의 한 교회였다. 인품이 온화하고 화합형의 목회를 추구하는 이 목사는 목회 시작 전 중요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것은 교회의 갈등에 대한 철학인데,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작은 알력이라도 생기게 되면 목회자가 먼저 스스로 목회지를 사임한다는 원칙이었다. 이 원칙 때문에 이복규 목사는 미련 없이 6번의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곳 천전교회와의 아름다운 만남까지 이어졌다. 이 목사는 현재 천전교회에서만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그 만큼 천전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요, 평화를 추구하는 이복규 목사의 목회철학을 닮아있다.

천전교회

오랜 역사를 지닌 천전감리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문제로 교회가 폐쇄된 수난과 영광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6.25전쟁의 아픔을 지나 지난 1981년, 교회를 신축하다 또 한 번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우들이 하나 됨으로 슬기롭게 교회의 오랜 역사를 이어왔다. 이복규 목사가 부임한 것은 지난 1993년. 천전교회는 이 목사와 궁합(?)이 잘 맞는 교회였다. 새롭게 성장하던 천전교회는 이 목사의 부임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건축문제를 기도 가운데 해결하고, 1998년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장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매입하여 세워진 성전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성경의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서 있다.

나눔의 집

이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의 거룩한 고민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하나님나라에 보다 기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거룩한 고민은 온 교우들의 기도로 승화된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이 목사의 목회철학이 만나 주님이 주신 축복인 노인복지 요양시설 「나눔의 집」이 탄생한 것은 교회 건축 후 3년 뒤의 일이었다. 2001년에 개원한 「나눔의 집」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한 복음전파와 희생, 봉사를 기반 위에 설립되었다. 나눔의 집은 특별한 외부 헌금 없이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건축된다. 이 목사와 천전교회의 선한 뜻에 공감한 지방회 교역자들이 물질적으로 돕고자 하였으나 이 목사는 기도 후에 이마저도 거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건물을 완공한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

현재 「나눔의 집」은 30여명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욕시설,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목사는 보다 깊이 있는 사회복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2002년에는 만학도로 직접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 복지학을 전공,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이 목사의 열정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마침 토요일이라 교회 봉사로 만난 박경자 권사(천전감리교회)는 「나눔의 집」과 이 목사의 사역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약한 몸으로 입소했던 노인들이 한 달, 두 달, 나눔의 집에서 지내면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복규 목사와 이순옥 사모의 헌신적 수고라고 넌지시 일러준다.



이 목사는 교단 내 중요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총회본부 감사위원장으로 주님과 교단을 섬기고 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경건과 생활 영성을 강조했던 야고보처럼 이 목사와 천전교회는 하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 계승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민들레 홀씨처럼 지역 내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놀랍게 퍼져가기를 기원해 본다. [천전교회 : 신북읍 율문리 ☎ 033-242-4427]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푸른 꿈" 3주 영어 완성

영어의 왕초보도 좋다. 단어 암기 기피증이 있어도 좋다.
영어를 싫어해도 좋다. 영어 때문에 공부가 싫은 사람도 좋다.
영어가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체험 할 것이다.
3주로 영어 고민에서 끝 ~ 영어 재미는 시작!!

"초등학교 시절 푸른 꿈 영어로 영어를 쉽게 배운 덕에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춘천여고 1년 정 샘-

대 상 : 초교 4학년 ~ 성인까지. 접 수 : 10월 17일까지
강의개강 : 10. 20 ~ 11. 7까지 (월, 화, 목, 금) 오후 4:30, 6:30
특 강 료 : 10만원(교재비 포함) 011-9797-4217

효율적인 인재를 목표로 하는 대영 E.M.I학원 (퇴계 우성 @앞 상가2층)



| 영혼의 양식

이 가을에는

(누가복음 12:16-21)



강 종원 목사
(남춘천침례교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디른 까마귀같이.

김현승님의 시, 가을의 기도 시어(詩語)가 떠오르는 때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홀로 있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가을에 소출이 풍성하여 마시고 즐기며 편히 쉬리라는 계획을 이야기 합니다. 이 부자는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능력, 또 모은 재물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즐기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결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인생의 추수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는 소출이 풍성한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열매들은 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영혼에 채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하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자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배불리 먹고 쉬고 즐기리라는 것 즉, 자신 '나' 만을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생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 가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계에도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마지막에 결실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8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만을 위하여 살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다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성령 안에서 보증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외로운 비행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 이 가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홀로 있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생의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정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도 결실하는 때가 있다는 진리를 생각하면서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들을 결실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색의 창

거룩한 떨림

- 춘천성시신문 창간 제 10주년을 축하드리며 -



이 영 규장로
(기독 교대원 감리회남선 교회동 부연 회 연합 회장)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춘천성시신문」 창간호를 발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10주년을 맞이 지난달(9월 17일)에 기념예배를 드렸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드린다.

창간 당시 우여곡절 속에 원고모집(당시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연합회장)과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충환 목사님'과 몇몇이 퇴근시간을 할애하였다. 월드비전 내에 방 한 칸을 쓰면서 사무용품 하나도 없이 옹기종기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은혜를 모으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하며 기도드린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를 이제는 「춘천성시신문」에 담아 30만 춘천시민들 모두에게, 날마다 전하는 일만이 우리들의 임무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춘천성시신문」이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한다.

지난 9월 17일 춘천성시신문 10주년 기념식 때 '조남진 원로장로님' 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월간에서 주간지로, 주간에서 일간지(가칭, '춘천성시일보')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춘천시민 모두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지기를 기리며, 또 먼저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찾아가는 성시신문으로 자라나기를 꿈꾸어 본다. 또한 춘천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를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협력해야 하겠다.

이런 신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행복한 「춘천성시신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춘천성시신문」이 곧 우리들의 소망과 복이 되게 하시고, 맛보고, 체험하며, 증거하는 「춘천성시신문」으로 발전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떨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033)257-1260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토요워십댄스반 개강
✚ 매 개 강 일 : 매주 첫째주 토요일
✚ 장 소 : 석사동 우석초교앞 경원대태권도장
✚ 수업시간 : 오후 3시 ~ 4시 30분
✚ 대 상 : 아동부 (6세~15세까지), 성인부 (직장인, 주부, 청년, 사역자 등)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263-6022 · 017-374-2440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쓰신 사람

(고전1:26-29)

믿음의 기업 현대방앗간 강동구 장로(동부장로교회) 편입니다

충성된 청지기



강동구 장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귀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방앗간 일에 분주하다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죽는가 보다.' 였고, 이어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아내도 자식도 아닌 '주문받은 저 많은 떡을 누가 다 해주지?' 였다고 한다. 그 정도로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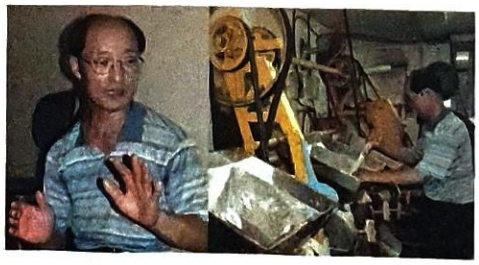
혹자는 서울 강동구에 구청장으로 출마하면 떼놓은 당상이라고 했지만, 강 장로는 방앗간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며 청지기로 맡긴 것이기에 이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 죽지 않은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 있기에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을 믿는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강 장로.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좋아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기에 비전, 꿈이라는 말로 현혹하는 온갖 달콤함 말보다 자기의 현재 일에 온 힘을 다하며 작은 일에 본질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요5:33; 8:50, 54)을 그는 믿는다. 그러므로 자식에게(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다른 아들은 세상과 맞짱(?)을 뜬다고 하며 호주에서 사업하다 얼마 전 추석 때 한국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훌륭한 목사가 되지 마라. 이름을 떨치는 목사가 되지 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라.",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작은 어려움에 포기하지 마라. 분명히 길이 있다."라고 늘 가르쳐 왔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

그는 예배당을 두 번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춘천에 오기 전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집리를 배우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3년을 계획하며 건축 준비를 하였다. 강 장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작정하였고, 그 일은 일 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다시 더 작정하는 은혜가 더하여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힘써 동참했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연한 계기로 양돈 일을 하게 되었는데(룻2:3 창47:13-14), 음식 찌꺼기는 군부대에서 대량으로 얻을 수 있었고 전국적인 양돈 사업이 망하는 때여서 돼지를 만원에 몇 마리를 혹은 거저 받게 됐다. 그런데 얼마 후 20배가 넘는 값으로 뛰어 이를 팔아 큰돈을 거두게 되었다. 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 장로는 고백한다.



또 한 번이 춘천의 동부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도 작정하자는 동의에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가 집을 짓는 일과 겹치게 되었다. 하지만 집은 잠시 뒤로 미루고 적금 탄 것을 마음이 변할 것 같아 바로 교회에 드렸다고 한다(그러나 건축업자는 직접 설계까지고 해와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집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물론 약속된 날짜에 집은 완성되었고 자신도 집값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배당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예배당 건축은 중단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회의하던 중 강 장로는 빚을 내지 않고 건축하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였다. 강 장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건축헌금을 작정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목표 없이 작정하지 말고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마침 건축위원회가 개편되는 시기였는데 강 장로는 재정분과위원장으로 세워달라고 자청을 했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헌신을 결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작정헌금을 위해 기도하던 중 1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가지 않자 부인 박 권사에게도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온다. 아내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도 응답 받은 것이 무엇인지 묻자 같은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집의 전세를 받아 일단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교회 명의의 은행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 다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가' 를 만들어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돕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글이 성도들에게 불리고(목사님은 이것이 전문가한테 의뢰한 작품이겠거니 생각해 강 장로가 지었다고는 생각을 못해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간증시간에 이것을 작사한 경위를 듣고 격려해주었다고 한다.) 모두 새 힘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이 준공되었다는 것이다.



평생의 소원, 평생의 기도

강동구 장로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 의정부에서 사업실패 후, 고향인 춘천으로 이사와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몸으로 섬기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일 새벽기도회 이후 교회마당을 청소하면서 몸으로 그의 결심을 실천하였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또 한 가지! 그의 평생의 기도가 있다. 방앗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의 방앗간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빵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였다.

[진행 정재호 | 취재 이영규 | 사진 김미경]

동부교회 성전건축 주님주신 사명일세
우리모두 동참하여 주신사명 감당하자
힘이들고 어려워도 주를위해 동참하세
힘이들고 어려워도 교회위해 동참하세

우리교회 동부교회 성전건축 이뤄보세
어떤일이 있더라도 힘을다해 이뤄보자
악한마귀 방해해도 기도하여 승리하세
악한마귀 방해해도 기도하여 승리하세

우리모두 동참하여 우리성전 건축되네
하나님이 도우시사 모든성전 건축되네
주하나님 은혜에 동부성전 세워졌네
주님은혜 귀한역사 무한감사 드립니다

내안의 타는 목마름 도전하세 성취하세
주님을향한 한국무용선교단모집!
춘천기독한국무용선교단
후평동 인공폭포앞 1.5닭갈비 4층
열정넘치는 기독교인 모두 ☎ 010-3180-5330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임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우리 곁에 있는 山
삿갓봉, 가덕산


▲ 삿갓봉 임도에서 본 가덕산

삿갓봉과 가덕산 개요

경기도 제일봉인 화악산에서부터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능선 - 몽가북계(몽덕산, 가덕산, 북배산, 계관산 그리고 삼악산까지) - 중에서 가덕산에서 춘천댐으로 갈라지는 능선에 자리잡은 것이 삿갓봉이다.

삿갓봉은 춘천댐 매운탕골로 불리는 계곡에서 출발하여 1시간 20분 정도 오르면 716m의 정상에 오른다. 정상이라고 하지만 정상부분의 산불감시 카메라와 더불어 펑퍼짐한 모습이 야산과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춘천의 봉의산을 중심으로 사우동과 시내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북서쪽에서 바라본 춘천의 모습은 쉽게 대할 수 없는 장면이다. 그쪽 산에 올라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삿갓봉에서 주 능선인 몽가북계에 이르면 가덕산에 이른다. 가덕산 858m의 산이지만 능선에 연결되어 있어서 자신 만의 독특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삿갓봉 등산은 주변 능선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삿갓봉으로 시작해서 가덕산과 몽덕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나(코스1, 2) 북배산과 계관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통해서 연계 등반을 하는 편이다. 아니면 가볍게 삿갓 봉만의 코스(코스3) 도 가능하다.

삿갓봉에서 오르는 코스 중에서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올라서면 철책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지암리에 있는 강원도 수렵장의 철책으로 삿갓봉과 가덕산까지 연결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삿갓봉과 가덕산의 매력

1. 접근이 쉽고 안전한 코스이다.
일반교통 편(춘천댐)으로도 접근이 용이하고 정상까지 오르는데 위험한 구간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겨울 산행을 해도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조건에서 삿갓봉은 반나절 코스가 가능하다. 즉, 2시간 30에서 3시간 정도면 족하다. 도시락 준비가 없이 간단한 식수만으로도 오를 수 있다.


▲ 매운탕골 끝에 있는 은혜기도원, 등산 출발점이다.

2. 삿갓봉은 몽가북계라 불리는 능선에 닿았다.
홍적고개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접근성에서 삿갓봉이 훨씬 유리하다. 해서 삿갓봉을 능선 종주의 출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전에도 소개했지만 여름을 전후로 이 능선에 오르려면 방화선이 설치된 관계로 너른 폭의 능선에 억새와 잡풀로 갈 길이 더디고 힘이 들 것을 각오해야 한다. 11월 말이면 잡풀제거하기에 눈 내린 겨울에는 만리장성의 분위기를 띄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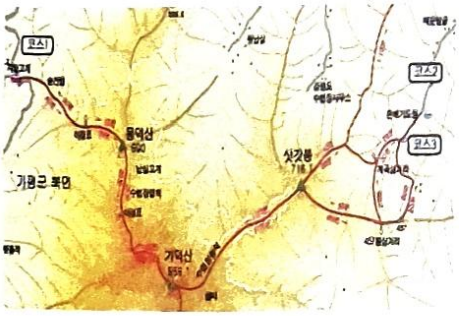

▲ 가덕산에서 북배산으로 바라본 능선

3. 춘천 시내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쪽 방향으로 춘천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가시거리가 좋은 날을 잡아서 오르면 좋겠다. 춘천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편집위원 고 재 만]



등산로









성시주일지키기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성시주일지키기

10월은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달입니다.
10월 첫째주일을 성시주일로 지켜주시고, 성시화운동을 위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시화운동의 소개를 위해 좋은 강사를 초대하고 싶은 교회는 연락주세요.

▶ 문 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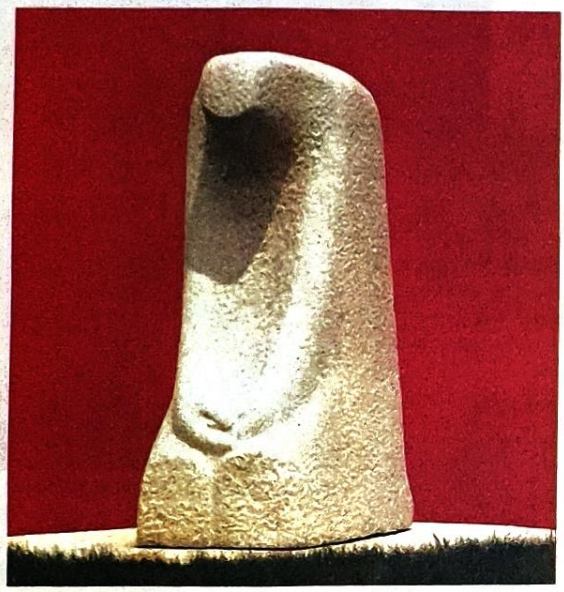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은 현명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예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 직원구함(경력자우대)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오 의 석 / 묵상 / 화강석 / 95 × 150 × 240cm / 2001년

작품속의 인물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자세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룹니다. 단순화된 선과 절제된 면의 흐름 안에서 인체의 각 부분은 '묵상'이란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의 신비를 경험하던 시기에 나타난 작품이지만 온 몸이 얼어붙은 듯 전혀 미동조차 없는 깊은 정적과 고요는 매우 동양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 중에도 생각하는 사람의 깊은 고뇌를 작품 속에서 읽을 수 있기에 이 작품은 주위를 지나는 이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하며 우리의 전 영혼이 호흡하는 시간의 신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시월의 기도

이대로 바람이게 하소서
바람이 지나가는 의미를 알게 하소서
가을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나뭇잎이 지는 뜨락에 서서
귀뚜라미 스치고 가는 고운함이게 하소서
산자락 끝 텅 빈 들판으로
비어가는 시간의 그림자 속으로
쓸쓸하게 잠기어 가더라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삶이
늙은 소나무 꼭대기에
잃어버린 유년의 연(鳶)처럼 걸려 있더라도
가난했던 믿음, 버리지 않고 제 자리에 있다면
떠나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망설임 하나까지
후회하지 않는 당신의 은총이게 하소서
맑고 순한 영혼의 그늘 아래
살아서 그러운 것이 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세워 듣게 하소서
나무들이 잎을 버리는 그 미세한 소리까지
소중히 담아 들고 가슴을 여는 기도이게 하소서
시월엔 노래하게 하소서
주신만큼 거두어들이는 기쁨이게 하소서.

-시. 김 학 철 (시인, 소양제일교회 집사)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0

임신부는 꼭 "독감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고 석 연 (가정의학과)

얼마 전부터인가 대학병원에서 '순환기내과' 대신에 '심장내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순환기내과라는 말보다 심장내과라는 말이 훨씬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장병도 콩팥병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일반인 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병명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독감"이다.

독감 하면 그 뜻이 '심하게 독한 감기' 정도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다. 물론 감기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인과 예후에 있어서 두 질환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감을 증상이 심한 감기 정도로 아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독감은 폐렴 등의 합병증이 잘 생길뿐더러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이다. 2003년에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 하면서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사스가 새로운 종류의 독감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했다. 그 이유는 독감이 사스보다 치사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 만큼 독감은 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보통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독감예방주사를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다. 경험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해 겨울에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고 말하면서 주사를 맞으러 온다. 그러면 정말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일까? 물론 정답은 '아니다'이다. 독감과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가 서로 다른 질환이므로 당연히 독감예방주사가 감기를 예방할 수는 없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독감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과 어린이들 같은 노약자는 물론이고, 심장이나 폐에 질병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물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독감에 걸리게 되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므로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임신부도 반드시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부 들은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10개월 간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독감예방주사는 꼭 맞아야 한다. 독감에 걸리면 일반인들처럼 약을 사용할 수 없어서 심하게 앓게 되고 또한 독감 합병증 등에 쉽게 걸리므로 임신유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독감예방주사의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만성질환자, 노약자 뿐 아니라 임신부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란다. 임신 14주 이상의 임신부는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꼭 독감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바야흐로 독감예방접종의 계절이 왔다.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 독감예방접종은 접종 2주후부터 독감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독감유행시기 이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스모스 활짝 피는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들이 하세요~

부모는 자신들의 교육수준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것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있지만 자녀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면서 가족에 대한 유대감을 증대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산교육을 위해서 가족여행이나 나들이를 하는 것은 어떨까? 이 가을만큼 좋은 계절은 없을 것이다. 그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고장 춘천의 볼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 춘천미술관

연중 다양한 전시회를 열어 문화 예술의 폭넓은 이해와 멋진 감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 이용시간: 10:00~18:00(전시중 연중무휴) 이용요금은 무료. ☎033)241-1856
- 위치: 강원 춘천시 옥천동 73-2(구/중앙감리교회)

■ 모형항공기박물관

80평 규모에 각국의 모형항공기 포스터 서적이 약 500점이 전시되어 있다.[www.busawon.co.kr]
- 춘천시 동산면 조양2리 ☎033) 262-5123

■ 애니메이션 박물관

춘천의 아름다운 주변여건과 1997년부터 진행해온 춘천애니타운 페스티벌(CAF)을 바탕으로 2003년 약 6만여 평 부지에 16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02평 규모의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건립되었다.
- 위치: 춘천시 서면 현암리 ☎033)243-3112
[www.animationmuseum.com]

■ 강원도립화목원



강원도 내에 자생하는 향토꽃나무의 발굴전시, 종보존과 번식, 시험연구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춘천시 사농동 시험포지(24,326평)에 향토꽃나무 전시관과 수목원을 조성,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도시민의 문화공간이다.
- 위치: 춘천시 사농동 ☎033)243- 6012

■ 춘천국립박물관



강원문화유산 보고인 춘천국립박물관은 매월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큰 공을 기여하고 있다. ☎033)260-1500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우석초등 맞은 편

■ 경찰박물관

조선 성종2년 포도청을 세우면서 치안활동에 사용한 장구로부터 일제 강점기의 민족 수난기와 6.25전쟁시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민을 보호한 애환이 서린 유물을 비롯하여 경찰활동과 발자취를 시대별로 전시하였다. 경찰주요유물을 주제별로 구분, 경찰의 변천과정과 발전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 교육장.
- 개관시간: 09:00~18:00(동절기17:00, 하절기18:00) 매주 월요일 휴무
- 참고: 무료관람, 사진촬영가능, 단체관람시 1주일 전 예약 요망, 주차요금 없음
- 위치: 강원도 신북읍 ☎033) 241-3295

■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 개관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7:00(휴관: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www.keric.or.kr]
- 위치: 춘천시 효자동 ☎033)250-2474
- 과학탐구전시관 관람내용
  - 가. 제 1전시실: 조상의 슬기 및 우주탐험선 등
  - 나. 제 2전시실: 인체탐험실, 민물고기 생태, 바다고기 생태, 숲의 생태, 지층과 암석, 지질시대의 생물 등
  - 다. 제 3전시실: 생활과학, 물리 · 화학, 우주과학 전시물
  - 라. 천체투영실: 계절별 별자리를 중심으로 한 천체의 운동 및 특징에 관한 탐구학습의 장
  - 마. 야외전시장: 우주왕복선, DNA 모형, 해시계, 소리반사경, 물로켓, 회전체의 운동 전시

■ 춘천인형극장



국제적인 인형극 축제 개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춘천인형극장은 국내 유일의 인형극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극장이다. 또한 매년 8월에는 춘천인형극제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인형공방', 전세계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형들을 볼 수 있는 '인형박물관' 등 어린이들을 매료시킬만한 다채로운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 위치: 춘천시 사농동 ☎033) 242-8450

이밖에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우리 고장에 어떤 좋은 시설이 있는지 검색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과 함께 이 좋은 계절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예 향

경건한 예배와 지각

주일날, 사오정이 늦잠을 잤다. 서둘러 예배를 보러 가면서 사오정이 기도한다.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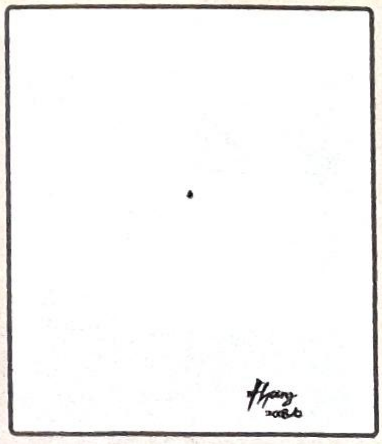
사오정이 교회에 겨우 도착, 하지만 계단을 오르면서 그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사오정 왈,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배에 늦지 말자. 경건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의 시작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1시간 전에 도착하여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한다. 이 믿음의 계승이 필요하다.

[편집위원 최상도]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jysince93@hanmail.net



다른 이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 영 춘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고 재 만
김 춘 배 이 관 형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MPR학습법, 기억법과 속독법 통한 선교용 학습법 눈길

교회 공부방 활성화와 전도 도구 기대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법

다른 사람보다 빨리 보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면? 봐야할 것도 암기해야 할 것도 많은 학생들에겐 어떤 능력보다 갖추고 싶은 능력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속독법과 암기법이 개발돼 교회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어 목회자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빨리 읽는 법, 또는 그러한 기능을 익히는 법을 속독이라고 한다. 한 때 이 속독이 열풍을 일으켰을 때가 있다.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큰 비중을 차지한 이후로 보다 많은 책을 단시간 내에 읽고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바로 이 속독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기존의 속독법과는 차별화를 둔 것이 있다. 바로 MPR인재양성연구소(소장 정진화)에서 개발한 MPR학습법으로 보다 빨라진 속도는 물론 책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학습법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학습법을 통해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MPR 공부방을 운영한다면 복음의 효과도 클 것입니다."



정 진 화 소장
인재양성연구소

MPR인재양성연구소(소장 정진화)는 일반 속독의 36배인 MPR속독법을 개발해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속독캠프를 진행하며 교회학교 부흥과 하나님의 일꾼 양성이라는 목표를 세워나가고 있다. 교육열이 높아 저학년에서부터 많은 독서량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MPR속독법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성장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MPR속독법은 시력이 좋지 않아 고생하던 유년시절 정진화 소장이 스스로를 위해 개발한 학습법으로, 개인적인 방편으로 활용한 기억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자 대학시절, 교수의 권유로 보급할 수 있을 만큼 개발시켰다. 한번 보면 잊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돼 차세대 교육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연상학습을 기초원리로 하며 인지심리학과 대뇌생리학의 연구 결과로 얻어진 대뇌의 기억 과정을 응용한 학습방법으로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진화 소장은 "기존 교육의 과한 무게감으로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만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대뇌의 창의력 계발을 통한 학습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석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화 소장이 개발한 이 학습법은 교회 공부방 운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최고의 학습기술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6일 완성 속독법, 일반 속독의 25배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진 "MPR학습법은 연상학습을 기초로 한 것으로, 우뇌 활동을 활성화시켜 아이들이 1초에 5-6쪽씩 책을 보게 한다."고 정진화 소장은 말한다. 정 소장은 인지기술과 기억법 지도를 통해 첨엔 시야를 넓히는 시근능력부터 키운다. 그 이후 10단계까지 훈련을 계속하면 속도가 빨라져 보통 한 권의 책을 읽는데 20~30초가 소요된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보아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꾸로 읽는 것까지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성경도 잘 훈련된 학생이 읽을 경우 4분 18초 만에 한 권을 독파할 수 있다. 어떤 책이든 5분 만에 읽고 성경도 30분에 소화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 독서 능력의 20배 이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창의심상 기억법' '초고속 속독법' '노트필기정리기법' 등이 있다. MPR 학습법은 이미 특허(특허번호 제0328973호)를 받은 상태며 여러 번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속독법을 익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일 아침 등교 전 부모님과 성경을 읽으며 QT를 생활화하는 훈련이 지속돼 전보다 계획적이고 알찬 시간을 보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MPR인재양성연구소는 말씀연구와 두뇌개발, 학습테도교정, 100% 성적 향상 비법 전수, 스트레스 해소와 교육 상담, 심리 치료 등 독특하고 탁월한 학습 전략으로 성적향상과 교회를 통한 학원복음화에 매진하고 있다.

속독법 캠프, 춘천에서도 열려

MPR 심상학습연구소(소장 정진화)는 창의적 교육학습 방법인 '6일 완성 속독법 캠프'를 춘천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오는 10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강촌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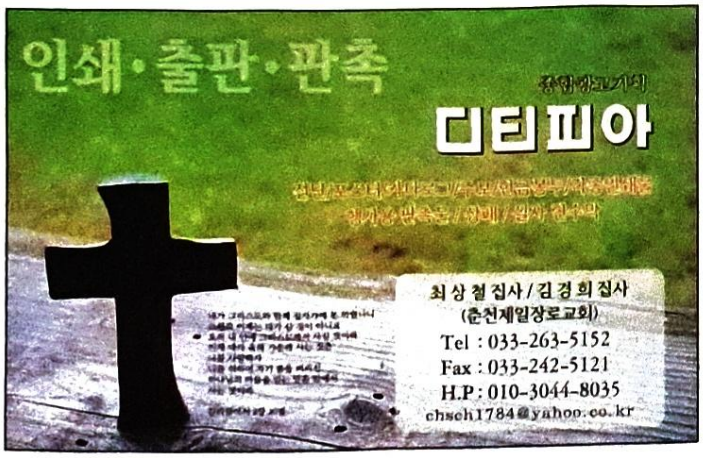
참가자들에게는 속독용 독서대 및 교재, 스톱워치 등을 제공하며 춘천지역의 참가자들을 위해 참가비를 특별할인해택을 준다.

(mpr.or.kr / 033-256-1260 / 02-6092-0114).



◀ 분당 20만자를 읽어내며 기네스북에 도전하게 되는 김영광학생(12세)은 또래 친구들보다 읽는 속도가 660배 빠르고 책을 뒤집어서 읽어도 160배 빠른 속도의 독서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보통 3~4개월 동안 3~4만자를 읽어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한 잠재력을 미리 개발할 수 있었던 것. 목회자 자녀인 영광군과 형 찬양군(14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용해 선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다.

문의) MPR학습연구소02)6902-0114 / 010-5140-1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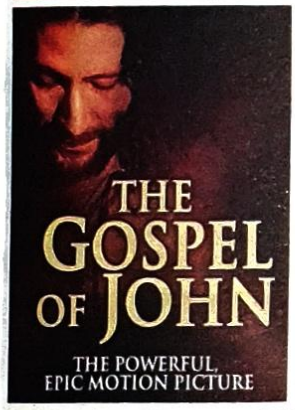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6>

복음서 영화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양서를 읽고 내면과 지혜를 깊고 알차게 가꾸어 나갈 묵상의 시간이 되었다. 좋은 책과 더불어 복음서도 읽으며 영성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이에 영화로 만든 복음서가 있으니 그중 유명한 것이 1964년 이탈리아의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가 감독한 <마태복음>이 있다. 당시 아카데미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예술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특별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수준 높은 걸작으로 남아 있다. [흑백 133분]

필자가 그리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가 향유옥합이었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요한복음>을 영화화한 작품을 만나게 되었다. 특이한 점은 요한복음 전체를 대사와 내레이션으로 고스란히 옮긴 것인데, 이 영화 한 편으로 요한복음 한 권을 그대로 읽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원문 그대로 충실하고 효과 있게 생생하게 살려냈으며, 역사가 바뀌는 격동의 시기였던 예수님 시대를 매우 꼼꼼하게 재조명하고 있다. 영국 감독 '필립 새빌' 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영상미도 훌륭하고 극의 완성도도 좋은 장장 180분(3시간) 자리 비주얼바이블 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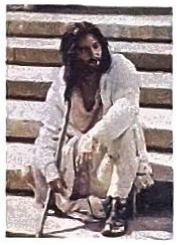
또 누가복음을 영화로 옮긴 그 유명한 프랑코 제퍼렐리의 <나사렛 예수>는 이미 수차례 성탄절 특집으로 공중파 TV에서 방영된 바 있다. 아름다운 화면과 올리비아 헷세 등 좋은 배우들의 열연으로 5부작 6시간 정도의 긴 상영시간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다. 물론 상영관에서 관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TV시리즈로 제작되었다.

이 영화들은 DVD타이틀로 제작되어 나와 있으니만큼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기도시간에 조용히 감상하다 보면 풍성한 은혜의 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한국도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춘천에서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2008 춘천사회복지엑스포'를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의 회복과 춘천사회복지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 세계금융 위기
▷▷ 춘천사회복지 엑스포

<우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외환은행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1계좌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9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광염감리교회	
광영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순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수촌교회		예담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한빛장로교회	
평화실로암교회		춘천와이신협	
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제시뉴욕			
강신희	강옥자	강태랑	김기태
김길홍	김라현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복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영	김영일	김요섭
김은선	김재철	김재홍	김종찬
김진상	김태숙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미호속	배진철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제자
박종근	박형숙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안현주	양금환
엄필남	오의석	오홍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영호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영순
이무식	이병연	이병일	이상돈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근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인
임재철	장기남	장기영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창순
전영덕	정규시	정은희	정재균
정재호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영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주승희	지경화
최명숙	최상호	최을옥	최종덕
최치광	최혜영	한성아	한희현
함종현	함학균	허미정	허순영
허연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황명진	황은주	황정섭	황진석
홍덕기			

[2008청소년비전캠프 후원명단]

광염감리교회	늘사랑장로교회
평화감리교회	정 재 호

청국장 환
인진쑥 환
뽕 잎 환
홍화씨 환
각종건강환 일절
미싯가루 등 약초제분 일절



건강식품 / 제환 / 제분

▷ 전화 상담 환영
▷ 전국 택배 가능

"고객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은 주문도 정성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창성제분 ▷위치 : 퇴계동 남춘천역 앞 남춘천피솔소 바로 옆
☎ 033)255-0042, 017-371-4941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샤머니즘을 비롯한 불교, 유교 등 각가지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다 보니, 다종교 속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진리임을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다. 종교적인 신념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분명 한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단순히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종교상황이기에 사회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진리(=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를 고수하기 위해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화합을 깨뜨려야 하는지, 아니면 타종교와의 대화와 화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시켜야 하는지. 사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접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기독교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현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써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다양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은 진리는 결코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으로 확신하고 그것만을 진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됨이 자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은 교리적인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 된 분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신념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참 진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주장할 수 없다. 오히려 주장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외면만 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내 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과 사랑으로 채워 그것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뿐이다."

❀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강습회
일시: 9월 22일~11월 24일(11주)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00 / 저녁반 7:00~10:00
모집: 지회로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드컴

1) 청소년 연합찬양집회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10. 18(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문의: 244-5400, [club.cyworld.com/yescomelove]
신유정 010-5422-2321 한승연 010-3369-6994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춘천ccc 홈커밍데이
일시: 10. 3(금) 장소: ccc회관
2) 세계 기도의 날
일시: 10. 7(화)
3) 강원도 간사수련회
일시: 10. 13(월)~15일(수)
4) 친구초청채플
일시: 10. 31(금) 장소: ccc회관 문의: 252-0542, 254-5776
5) 예비결혼학교
일시: 10. 11~11. 8 (토)(마감10.4) 회비: 10만원
장소: 서울 신촌장로교회 문의: 가정선교원 02-394-0635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ME(Mission Exposure)
일시: 9. 22~10. 20 매주 월, 오전9:00~오후1:10
장소: 춘일감리교회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전국간사훈련
일시: 10. 13(월)~17(금) 장소: 대구 성주훈련원
2) 선교학교개강
일시: 10. 27~11. 24 매주 월, 오후7시 장소: 춘천 IVF회관
3) 말씀사경회
일시: 10. 29(수)~31(금) 오후7시
문의: 252-5200

◆ JDM

1) JDM 설립 31주년 감사축전
일시: 10. 3(금) 오전10시
장소: 한림대 일송아트홀, 대운동장
2) 간사 영성수련회
일시: 10. 20(월)~25(토) 장소: JDM훈련센터
3) 종교개혁 세미나
일시: 10. 30(목) 오후7시 장소: 한림대(예정)
문의: 033)243-6701, 010-2701-3375

◆ GBT성경선교회

1) 위클리프스쿨 서울 · 경기 · 강원연합 리트릿
일시: 10. 2(목)~3(금)
장소: 서울 제자들교회
2) 위클리프스쿨 개강
일시: 9. 22~12. 1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부산개위성선교단 모임

1) 토요워십댄스반 개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 (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앞)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한 달에 2번)
일시: 10. 6 (첫째주 월), 20일(셋째주 월) 오후7시
장소: 이루어가는교회 (cc볼링장 뒤)
문의: 박유식 010-9368-9856

◆ (재)기독교한국호산선교회

1) 춘천 대안교육 학생모집
"희성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미국의 베트스쿨 같은 대안학교를 지향"
대상: 중고교생
2) 자원봉사자 및 전문멘토인 모집
청년봉사자: 스포츠, 놀이리, 음악, 영어, 상담 등 청소년을 위해 함께 활동해주실 기독청년.
전문봉사자: 각 분야의 교수, 사업가, 연구자, 국제활동가 등 청소년을 위한 멘토로 봉사하실 분.
문의: 254-3205 / H.P. 011-9737-1919

◆ 춘천기독한국무용선교단 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톤갈비 4층
문의: 춘천기독한국무용선교단 010-3180-533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인터컴 춘천지부

1) 비전스쿨 No my vision, YES HIS VISION
일시: 9.18~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문의: 장명자016-797-9234)

2) 새로운 선교적 예배 - 월드미션 집회
일시: 10. 20(매월3째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광염교회(애막골 진흥a상가 맞은편)
문의: 송봉춘간사(010-9125-5894)

◆ 2008 춘천선교대회

일시: 10. 6(월)~8(수) 오후7시 장소: 평화감리교회
문의: 춘천기독교연합회 256-1260

◆ 7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일시: 10. 14~11. 11(매주 화, 오전10~3:30)
장소: 배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011-368-9044, 018-325-1968

◆ 기독교 문화사역의 뉴 패러다임

일시: 10. 6~11. 24(매주 월) 오후7시~9시, 8주 과정
장소: 춘천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255-8172,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대상: 목회자 · 사모 · 신학생 · 교사 · 부서리더 · 문화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등록: 019-763-8868
현장등록(9만원), 단체5명이상1인당(8만원)
(농협 1113-02-190120 예금주 김은실)
내용: 문화선교를 통한 교회부흥전략, 교회미디어사역, 컴퓨터게임 문화대안, 교회문화레저스포츠 등

◆ 교회 레크리에이션 아카데미

일시: 10. 5 ~ 26(주일오후3시~5시), 4주 과정
장소: 춘천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cafe.daum.net/treechurch
등록: 1차 10.2일까지(3만원), 2차 현장등록(4만원), 단체5명이상1인당(3만원)
강사: 백분기목사(문화사역연구소장)
문의: 019-763-8868 / www.kyef.co.cc
내용: 교회레크리에이션의 실제,찬양 게임송,아이스브레이크팁과워게임,조별워십,spot기법,
※교회, 단체모임 레크리에이션 행사기획 도와드립니다.

◆ 청소년 지도자 · 교사아카데미

일시: 10. 6 ~ 11. 24(매주 월) 오후2시~4:30분, 8주 과정.
장소: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대상: 목회자, 신학생, 중 · 고등부사역자, 교사, 청소년부흥에 관심있는분.
등록: 019-763-8868 현장접수(7만원), 단체5명이상1인당(6만원).
내용: 청소년사역원리, 청소년기도훈련, 설교작성, 아이스브레이크훈련커뮤니케이션, 예배찬양상담, 문화

◆ 현대교회나눔의 집(노인요양원 호사실)

"편안하고 가정과 같은 쉼터"
대상: 65세 이상 할머니
문의: 244-1913, 011-367-4426 (현천감리교회 이복규목사)

◆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김명숙 019-432-5035, 사무장 정영희 010-7707-2225
전시안내: 2008년 12월 12일 ~ 12월 18일 / 춘천미술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성시화를 위한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9월 5일(금) 오전11시 사무국 월례예배를 드리고 성시화와 각 기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다. 조영춘 성시부본부장은 마가복음4:30~32절 말씀을 통해 "성시화운동은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나라확장운동이며, 성시화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으면 새순이 돋아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시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 춘천동지방 교역자 월례회



춘천동지방 교역자 월례회가 9월 4(목) 오전11시 반석교회(담임:김희경전도사)에서 열렸다. 이날 감리사 선거와 춘천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춘천 중보기도회



춘천의 영적회복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9월 9일(화) 오전9시 주향교회(담임:이병철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 땅의 신사터를 찾아다니며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타키모토 노조무 목사(일본 신시로교회)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신사참배 70주기인 2008년에 한국과 일본 땅의 영적 묶임을 풀기 위해 중보해야 한다."며, "춘천의 우두동은 신사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춘천의 영적 묶임을 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기독영화상영 〈바베트의 만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독문화의 정착을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춘천성시신문에서 소개한 기독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9월에는 11일 오후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반목된 이웃들을 화해시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요리사 바베트의 이야기 〈바베트의 만찬〉을 상영하였다.

■ 강원도기독교미술인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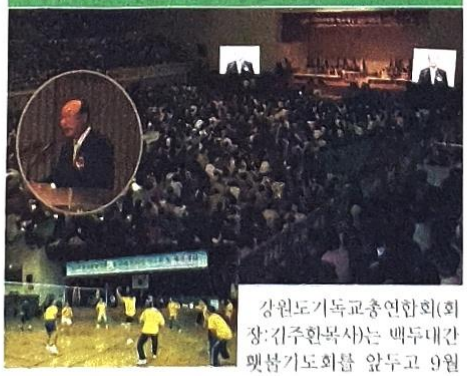
강원도기독교미술인연합회(회장 김명숙 집사)는 8월 23일(토) 오전11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미술과 김병호 교수 초청 '그림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춘천성시신문 10주년 감사예배



춘천성시신문은 창간(1998.9.15) 10주년을 기념하여 9월 17일(수) 오전 11시 성시본부 세미나실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조남진 초대성시화운동본부장, 박상호 전 편집장, 한균 춘천성시본부장, 피종호 교역자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조 편집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편집위원들은 특별찬양으로 영광을 올렸다. 조남진 초대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중에도 춘천성시신문이 계속 발간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앞으로 성시신문이 월간지에서 주간지, 일간지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하였다. 또 박상호 전편집장도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수고하며 성시신문을 발전시킨 편집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격려하였다. 이날 오랜동안 성시화를 위해 헌신한 김주환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와 목회자 체육대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김주환목사)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앞두고 9월 2일(화) 횡성체육관에서 목회자체육대회를 개최, 강원도 기독교인의 단합과 성공적인 기도회를 기원하였다.

9월 28일(주일) 오후4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김진선지사, 한장수교육감, 허천욱의원, 이광준춘천시장을 비롯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임원과 성도 1만여명이 호반체육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대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주환 회장은 "강원도 지역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개최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9회째로 올해 중점사업인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 운동을 통해 도연합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강사로 초청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주제 설교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환회장은 평양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후원금과 지소득층자녀 중식지원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기도회헌금은 북강원도결핵어린이돕기 범도민운동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임동진목사 초청 간증집회



밸런트 임동진목사 초청간증 전도집회가 오순절교회(담임:김지훈목사) 주최로 9월 30일(화) 오후7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C.C.C.본부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조영춘성시부본부장 사회, 이학규홀리클럽회장 기도, 춘천성시합창단과 조애숙사모의 특송, 피종호교역자연합회장 봉헌기도, 허천욱의원 축사, 오순절교회 임보배사모의 축가, 김주환강원기독교총연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임동진목사(서울 열린문교회 담임)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 제3회 목회세미나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피종호)는 9월 18일(목) 오전10시 평화감리교회에서 제3회 목회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한의 목사는 "쉐마와 교회 성장", "제자훈련과 교회 성장"을 주제로 쉐마교육을 교회에 잘 적용하여 성장한 사례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정진화 인재양성연구소장은 교육심리학의 연상학습을 기초 원리로 한 심상학습법을 소개하였다.

■ 국토순례 중보기도회



일본 와그니리더십신학교 학장 김이스라엘 선교사가 이끄는 국토순례 중보기도단은 9월 25일(목) 오후7시 순복음춘천교회를 방문, 중보기도회를 열었다. 김이스라엘 선교사는 금식기도 중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환상 중에 보고 일본에 이어 한국 전역을 돌며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이날 땅의 치유, 전봉·송교영(우상숭배)으로부터의 해방, 십그리스도영의 결박,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부음의 회복, 영적 대각성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 동부교회 말씀사경회



춘천동부교회는 "위로와 비전"을 주제로 9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박창운 담임목사의 말씀잔치가 벌어졌다.

■ 강촌교회 성전 봉헌예배



춘천시 남산면 강촌1리에 있는 강촌감리교회(담임:김성호목사)는 9월 29일(월) 오전11시 성전 봉헌예배를 드렸다. 강촌교회는 지상 6층과 별관 2층의 규모로 성전과 문화예술마당, 게스트하우스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성호 목사는 "성전 건축을 위해 정성과 기도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며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 또 문화예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원권역 아동학대사례슈퍼비전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은 9월 26일 오후2시 강원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조수연),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서은숙)과 함께 강원도 내 아동학대사례에 관한 슈퍼비전회의를 진행하였다.

취재 · 김미경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 성시화!

2008 춘천 성시화를 위한

연합선교대회



강사 오정호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 담임목사)

학 력
- 총신대학교 졸업
- 총신대 대학원 졸업
-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졸업

경 력
- 제자훈련 목회자협의회(Cal-net) 전국대표
- 한국교회 미래 목회포럼 이사장
- 국제선교회(Operation Mobilization)대전이사장
- 대전 충청 학원복음화협의회 공동대표
- 대전 CBS 운영이사장

춘천 선교대회 부흥성회
- 일 시 : 10월 6 일(월) ~ 8 일(수) 오후 7시
- 강 사 : 오 정 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목회자 세미나
- 일 시 : 10월 7일(화) 오전 10시30분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성시비전포럼(One Vision One Movement)
- 일 시 : 10월 8일(수) 오후 2시 ~ 5시
- 강 사 : 각 지역 성시관련 인사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찬양과 함께 하는 성시중보기도회
- 일 시 : 10월 9일(목) 오후 7시30분
- 장 소 : 유스 아트홀(명동 유영호치과 3층)

주 최 : 춘천기독교연합회(256-1260) 공동주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CBS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영적지도자 양성 및 훈련

야웨(יהוה)신학교



춘천캠퍼스 박 상 호 목사
이 사 장
춘천대학교신학대학원(M.Div.)
춘천대학교 기독교신학박사
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현, 월드비전 춘천시지부장
현,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학장 윤 용 진 목사(Ph.D.)
강원대학교 법학과(LL.B.)
춘천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춘천대학교 대학원(Th.M.,Ph.D.)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현, 야웨신학교 학장

한국교계의 지도자 양성
세계의 목회현장이 원하는
영적전사를 배출하는 학교
야웨 신학교의 VISION입니다.

신앙과 영성
학업과 지성
생활과 정서
21세기 리더쉽
신학교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야웨 신학교와 함께 하십시오!!

야 웨 신 학 교 춘 천 캠 퍼 스 (YHWH THEOLOGICAL SEMINARY)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번지(춘천제일장로교회 생활복지관) TEL.033)253-7942 FAX.033)242-5179
학장 윤 용 진목사 H.P 019-375-9256, 교무처장 김 희 균목사 H.P 010-8901-0059
홈페이지: yhwhschool.org 이메일: yhwhschool@hanmail.net
서울캠퍼스 02-3281-9256 청주캠퍼스 043-223-0975 해외캠퍼스(2곳)

부설:아웨상담연구원도 개강 중에 있습니다.